

2

2025

**연구와 전시**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새로운 다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전시 콘텐츠 제작의 기초

조사 연구와 전시의 선순환 현장을 가다

Hello 향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시공간 여행을 떠나요

**기억의 서랍**

경복궁 시대의 마감과 새 출발

**사람과 이야기**

보방사부터 한류까지 역동하는 한국 문화를 품다

박물관 뉴스레터가 대중서가 되기까지

THE MUSEUM NEWS FEBRUARY 2025 VOL.642

## 박물관 뉴스레터





04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업무 계획



18

경복궁 시대의 마감과 새 출발



24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인터뷰



28

「유물명: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

연구와 전시

04 2025 주요 업무 계획  
용산 개관 20주년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새로운 다짐

10 학술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전시 콘텐츠 제작의 기초

12 학술  
조사 연구와 전시의 선순환 현장을 가다  
-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연계 학술심포지엄 -

14 전시  
Hello 향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시공간 여행을 떠나요

사람과 이야기

16 잠시 멈춤  
풍량을 가르고 유유히 가는 작은 배

18 기억의 서랍  
희망의 뜻을 달아 새 시대를 열다

22 K-뮤지엄  
보빙사부터 한류까지 역동하는 한국 문화를 품다

24 인터뷰  
2025년, 여전히 더욱 새롭게  
우리의 즐거운 국립중앙박물관!

28 출판  
박물관 뉴스레터가 대중서가 되기까지

30 주요 소식

32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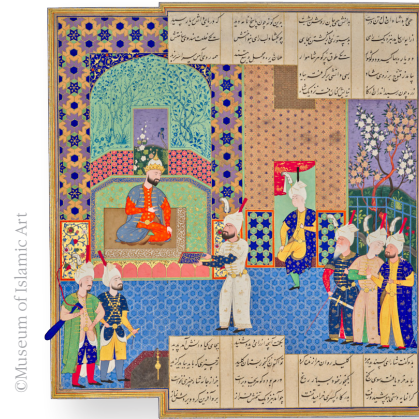
34 굿즈

35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 시대와 가치를



# 문화유산

용산 개관 20주년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새로운 다짐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 20주년을 맞아 박물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게 될 올해는 ‘공감의 박물관’, ‘열린 박물관’, ‘융합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이라는 네 가지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2025년이 광복 80주년이자 국립박물관 설립 80주년, 그리고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은 시대와 가치를 잇고, 역사의 중심에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 잇다

# 문화





# 공감

## 세대를 이어주는 공감의 박물관

● 광복 80주년, 국립박물관 80주년, 그리고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를 매개로 세대를 잇는 다양한  
기념 사업을 펼친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와 행사로 공감의 장을 넓힌다.

국가적·박물관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평화와 국난  
극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와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80년 역사를 뛰어넘어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  
기 위해서다. 기획 단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주요 전시로는 먼저, 특별전 〈이순  
신〉(11월~'26년 3월)이 있다. 전란 속에서

도 평화를 염원했던 이순신 장군을 조명  
하는 이 전시는 임진왜란 무기 연구와 발  
굴조사를 바탕으로 전쟁의 모습을 사실적  
으로 접근하고, 그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탐색한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을 기리는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7월~12월)와  
심화전시 〈독립을 향해 함께 하다〉(8월  
~10월)도 개최한다. 8월 15일 광복 80주  
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 ‘박물관 문화향  
연’도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희망을 기원  
하는 가슴 벅찬 광복절을 맞고자 한다.

용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도  
차례로 진행한다. 조선 전기의 미술적 혁  
신과 변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조선 전기  
미술(가제)〉(6월~8월)을 비롯해, 용산 개  
관 후 20년 간 조사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재조명된 소장품 20건을 소개하  
는 〈Connect20: 사람을 잇다, 기억을 엮  
다〉(7월~12월) 전시가 열린다. 또한 ‘용산  
20년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학  
술대회를 개최하여 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용산 시대 박물관의 성취를 평  
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구  
체적으로 설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충무공 전시  
특별전 〈이순신〉



사지팔경도(여름)  
특별전 〈조선 전기 미술〉

국립중앙박물관의 사회적 책임은 21세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  
하는 것이다. 전시와 함께 심화된 연구와  
보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문화기  
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  
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 28일에는 ‘박  
물관 보존과학센터’가 새롭게 개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  
로 한 문화유산의 과학적 관리 체계를 구  
축하고 보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동반  
가족 관람객의 수요 증대에 맞춰 어린이  
박물관 확장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  
진한다. 새로운 어린이박물관은 발달단계  
별 맞춤형 체험전시와 가족 친화적 휴게  
공간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보다 친숙  
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박물관 전문 인력을 위한 ‘국립중앙박  
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직무교육도 확대 운  
영한다. 박물관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 및  
대국민 문화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  
장 과제 중심 훈련’을 중점적으로 학예인력  
에 대한 통합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작년에  
국립박물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범위  
를 올해는 국립박물관으로 확대하고, 박물  
관 예비 인력인 대학(원)생 및 미취업 학예  
사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 연결

## 세대를 이어주는 열린 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구, 보존,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기관으로서 시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확장해 나간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 보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박물관  
보존과학센터’, 박물관의 미래 주인공을  
위한 ‘어린이박물관’의 확장, 박물관의 전문  
인력을 교육하게 될 ‘뮤지엄 아카데미’는  
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인터랙티브 공간



‘박물관 보존과학센터’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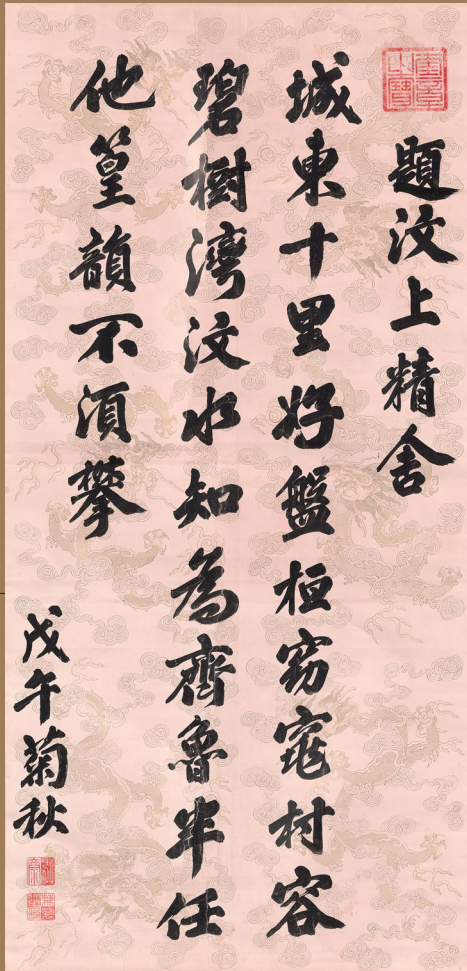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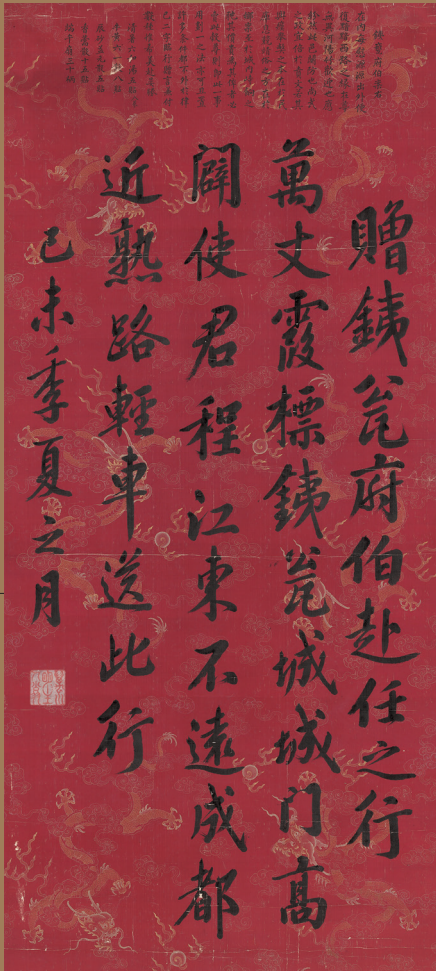
‘뮤지엄 아카데미’ 수업 모습



# 융합

## 문화의 가치를 이어주는 융합의 박물관

- 문화유산의 원형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는 창조적 K-콘텐츠를 발굴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정조 어필  
상설전시관 서화실

국립박물관의 연구와 조사는 범위의 확대와 함께 관점과 방법론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간다. 문화유산의 원형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여 창조적 K-콘텐츠를 발굴·생산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속 가능한 K-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식문화의 형성과정과 배경, 의미를 조명하는 프로젝트 ‘끼니에서 수라까지’를 비롯하여, 대형 CT(컴퓨터 단층촬영) 등 과학적 분석과 연구로 목조 문화유산의 나이트 연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목조 문화유산 연륜 연대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북한지역 불교 금석

문 탁본을 중심으로 역사학 및 고고학, 미술사학을 융합한 심층연구 ‘한국 금석문 연구 프로젝트’에도 만전을 기한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로서 문자와 예술이 결합된 서예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말까지 상설전시관 서화실을 개편하여 금석문, 활자, 인장 콘텐츠를 활용하고, 대표 서예 작품을 상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서예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함께 조명할 계획이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카이스트와 함께 ‘박물관에서의 디지털 헤리티지 활용과 공유’를 주제로 박물관 융합연구의 역량 증진에 노력하고자 한다.



호우총 남분 대호 출토 제사 음식  
융합연구 프로젝트 ‘끼니에서 수라까지’



‘왕의-서’ 삽화  
상설전시관 이슬람실  
©Museum of Islamic Art

# 공존

## 문화의 다양성을 함께 나누는 공존의 박물관

- 다문화 사회에서 박물관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세계 각국의 유산을 국내에 전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반영한 K-컬처 콘텐츠를 연구·발굴하여 세계로 확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해 문화 다양성 주제를 발굴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상설전시관 3층 세계문화관에 이슬람실(11월~’26년 10월)을 신설해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다.

국의 문화제 전시도 계속된다. 4월에는 프랑스 케브랑리박물관과 공동주최하는 특별전 <오세아니아: 대양의 예술(가제)>을 열어 태평양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고,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11월에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관 소장 <인상주의> 특별전을 개최하여 근대 서양미술의 흐름과 사회적 배경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대표 국립박물관이 교환전시를 추진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본 미술의 재발견>(6~8월), 도쿄국립박물관은 <한국 미술의 보물상자>('26년 2~4월)를 각각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K-컬처의 세계적 관심을 이어받아 ‘한국의 미와 멋’을 주제로 한 전시를 열어 전통문화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국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K-컬처 확산을 선도하고자 한다. 3월에는 미국 덴버박물관 특별전 <달의 위상, 한국의 달항아리>(3~6월)와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개최 특별전 <100가지 행복, 한국문화특별전>(3~8월)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또한, 고 이진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이 올해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11월~’26년 2월)을 시작으로 시카고박물관('26년), 영국박물관('26~'27년)에서 이어진다. 이 전시에는 서화·도자·공예·불교조각 등 250여 점이 출품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전시도 계속된다. 작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국보순회전>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이 지역 소재 소속박물관에서도 이어져 곳곳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국보관(12월 개관 예정)을 비롯해,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과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이 추진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화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명실상부한 문화 교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어갈 것이다.

정리. 편집팀



의례용 조각  
특별전 <오세아니아: 대양의 예술>  
©Musée du quai Branly – Jacques Chir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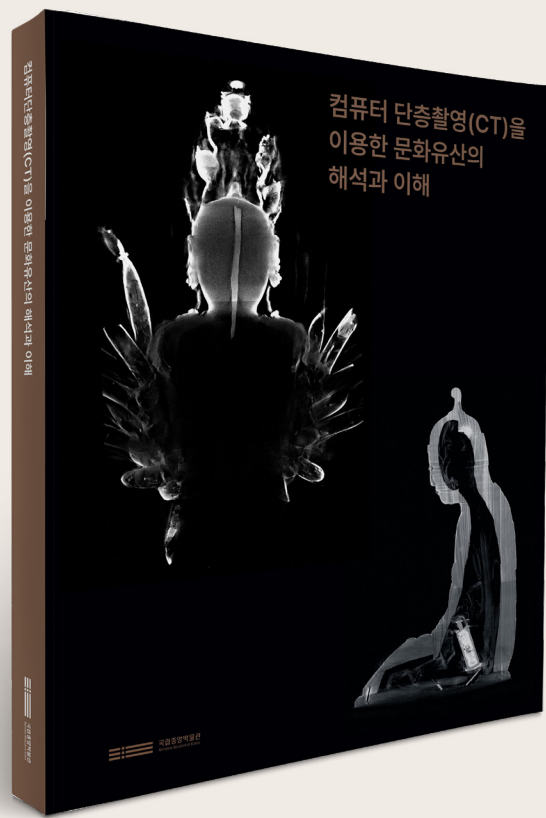


금동보살삼존입상  
고 이진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전시 콘텐츠 제작의 기초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해석과 이해」 보고서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2017년 컴퓨터 단층촬영(CT) 장비(60kV)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국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등 약 770건의 문화유산 3차원 형상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바탕으로 내·외부 구조, 제작기법 등의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해석과 이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 금속, 도자기, 목재 등 대표적인 재질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CT 분석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평양 오야리 출토 <금장식 철제 환두 소도>와 고려시대 대표적인 상형 청자인 <청자 어룡모양 주전자>를 비롯하여 18세기 초에 활동한 승려 진열進悅 작품으로 추정되는 목제 불입상 등 13점의 CT 분석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금장식 철제 환두 소도>의 상감기법은 두 줄의 얇은 금속선으로 길게 이어지는 식물 줄기와 일정한 간격으로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잎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고사리 문양을 새겼다. 상감에

사용된 금속선의 두께는 고사리 문양이 제일 두껍고 다음으로 줄기, 잎이 가장 얇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체적인 부식 상태와 내부 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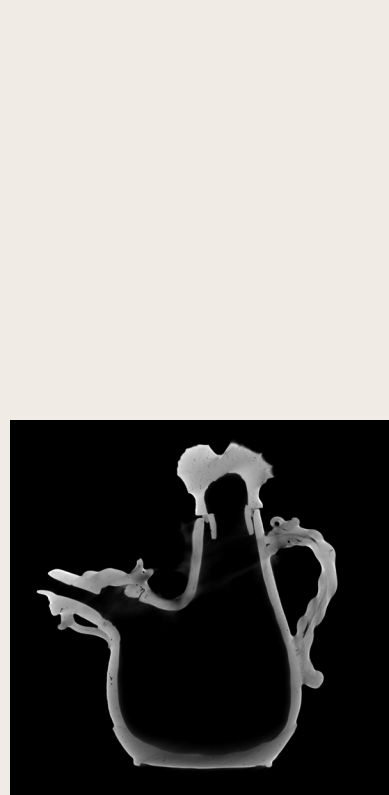
<청자 어룡모양 주전자>는 높이 24.4cm로 여러 부위를 따로 만들어 붙인 흔적이 있다. 먼저 몸체는 물레를 이용하여 구연(손잡이가 달리는 부분)이 좁은 항아리 형태를 만들고 한쪽 측면을 자른 다음 좁혀서 주머니 형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룡머리 부분은 따로 제작하여 몸체와 접합하였으며 턱 아래의 수염과 손잡이 장식에서 몸체 부분으로 이어지는 꽃과 잎 모양의 장식, 위쪽 입수구 양옆에 돌출되며 날개



금장식 철제 환두 소도 金裝飾鐵製環頭小刀



목제 불입상 木製佛立像



청자 어룡모양 주전자 靑磁魚龍形注子

처럼 솜은 지느러미 부분도 따로 제작하여 붙였다. 뚜껑은 꼬리 장식이 있는 위쪽과 아래쪽의 마개 부분을 따로 만들어 붙인 흔적이 있고, 손잡이는 세 가닥의 긴 점토를 꼬아서 제작한 다음 몸체에 결합하였다.

목제 불입상의 제작 기법은 통나무의 내부를 파내어 제작하고 얼굴과 귀를 따로 만들어 붙였다. 머리 부분에는 금속못으로 고정된 부분이 확인되는데 얼굴은 정수리와 양쪽 관자놀이, 귀는 중앙 부분에서 금속못이 확인된다. 가슴 부분에는 거멸쇠가 확인되는데, 이는 목재의 방사방향으로 갈라짐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 거멸쇠가 사용된 부분의 목재를 파내어 고정하고 외부를 다른 목재로 막아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오른 어깨와 오른 다리 상단부에는 사각형 목재가 끼워져 있는데 나이테로 보아 웅이 부분이 빠진 곳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문화유산 각각의 세부 정보를 밝혀내면서 학계와 대중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0월 박물관 보존과학센터 개관과 함께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을 활용한 한 단계 앞선 보존과학을 선도하고자 한다. 그 중 CT를 활용한 연구는 단순한 단면 형상의 관찰을 넘어 문화유산의 제작 기법, 내부 결합 방법, 손상 상태, 재질 파악, 내·외부 구조, 두께 분포, 균열 및 기공 분포, 최대 용량, 수리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제작 기술 및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박물관 보존과학센터 개관에 맞추어 도입될 원통형 CT는 목재 문화유산의 나이테 분석을 통한 연대기 작성 등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과 함께 학계 연구자들과의 융복합적 연구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 양석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





## 조사 연구와 전시의 선순환 현장을 가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연계 학술심포지엄

1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미술사학회의 공동주최로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는 상형청자를 단독 조명하는 첫 전시로, 지난해 11월 26일 개막해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상형청자(象形靑磁)는 인물·동물·식물 등의 형상을 본떠 만든 청자로, 비색(翡色)의 좋은 청자색과 더불어 색(色)과 형(形)이 중심이 되는 전성기 청자를 대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상형청자를 매개로 하여 도자 분야뿐 아니라 역사, 금속공예, 보존과학 분야 등 다각도의 전문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7개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을 통해 상형청자의 본질에 한층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강희정 한국미술사학회장의 개

회사와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말을 통해 고려 상형청자를 단독 조명한 특별전과 연계 학술심포지엄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상형청자, 고려의 새로운 미디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고려시대 상형청자의 역할과 시대적 의미에 대해 응축된 메시지를 전했다.

주제발표의 첫 번째 순서는 가천대학교 김보광 교수가 열었다. '고려 중기 예제(禮制) 개편의 내용과 지향'에서 고려시대 예제 개편의 맥락과 방향을 고려 중기를 중

심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상형청자 제기와의 접점을 상징하고 그 소재의 함의를 추론했다.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강경남 학예연구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며 청자와 관련한 많은 전시와 연구를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려 상형청자 향로의 대표적인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의 조형과 의미를 짚었다.

다음으로 공주대학교 문경호 교수는 '송·원대 고려의 해상 교역로와 청자 유통'을 발표했다. 고려청자의 발생과 발전, 특히 상형청자를 비롯한 고려 전성기 청자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쳤던 중국 청자의 존재와 관련하여 교류사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접근했다.

오후 순서는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의 기획자인 국립중앙박물관 서유리 학예연구사의 '고려 유적 출토 상형청자의 현황과 성격' 발표로 시작하였다. 특별전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상형청자의 생산·소비·유통 관련 유적 출토품을 더

욱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어서 '개정·강도 상형청자의 조형과 시대적 의미'에 대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박지영 학예연구관이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고급 청자인 상형청자의 주된 수요처였던 고려시대 수도인 개경과 몽골 침입기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 출토 상형청자를 통해, 상형의 소재가 가지는 함의와 상징에 대해 논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숙 교수는 고려 상형청자를 금속공예와의 연관 속에서 다룬 '고려 금속과 청자 주자를 통해 본 '상형'의 의미와 제작'을 발표했다. 기능이 뚜렷한 '주자'를 중심으로 금속과 청자를 비교하며 '상형'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출품작이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표 상형청자에 대해 2년여에 걸쳐 직접 CT촬영 및 조사연구를 진행한 국립중앙박물관 양석진 학예연구사가 '고려 상형청자의 구조와 제작방식: CT촬영을 통해 본 상형청자'를 발표했다. 역사와 미술사적 맥락과는 다른 과학적인 조사 결과

를 통해 상형청자 제작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를 엿볼 수 있었다.

각각의 발표에 대해 고려대학교 김윤정 교수를 좌장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서유희 학예연구관, 국가유산청 김태은 문화유산감정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이강한 교수, 고려청자박물관 조은정 학예팀장, 명지대학교 박정민 교수, 동국대학교 이용진 교수, 고려대학교 김은경 교수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특별전 연계 학술심포지엄은 시작부터 종합토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중이 발표장을 가득 메워 고려 상형청자에 대한 전공자와 일반인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상형청자에 대한 2년여의 조사 연구와 보고서 발간을 바탕으로 특별전이 꾸며지고 이를 토대로 다시 인접 학문을 포괄한 학술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조사 연구와 전시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사례가 되었다.

글. 임진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연계 학술심포지엄







국립부여박물관

# Hello 향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시공간 여행을 떠나요

국립부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재개관

‘국립부여박물관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관람객들은 대부분 ‘백제금동대향로를 보러요’라고 답한다. 백제의 명품이자 국립부여박물관의 상징인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이 백제금동대향로를 주제로 만든 향로 어린이박물관이다.



2025년 1월 2일에 재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은 영·유아 중심인 여느 어린이박물관과 달리 초등 3~4학년을 주 대상으로 야외마당과 로비에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마치 백제금동대향로의 세상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린이들은 함께 어울려 뛰놀면서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야외마당은 어린이들이 긴부리새·포수·인면조신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입구 위로는 마스코트인 초대형 코끼리가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로비에 새로 꾸민 봉래산 쉼터는 방문한 어린이와 가족이 마치 신선이 된 듯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정보 검색을 하는 휴게 공간이다.

전시실은 총 8부 26구역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신체활동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준다. 놀이와 게임, 협동과 배려, 학습과 탐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백제금동대향로를 체험할 수 있다.

제1부 ‘안녕? 향로!’는 다채로운 빛과 색으로 이루어진 대형 매핑Mapping 영상에 매혹적인 향로 캐릭터들이 등장해 어린이박물관을 소개하고 이어서 펼쳐질 향로 속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2부 ‘톡톡, 향로’는 어린이들이 향로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고, 향로 디지털 발굴 체험 후 실물 크기의 향로를 돋보기로 관찰하고, 향로 속 캐릭터가 표현된 다른 문화유산도 만나보며, 향로의 역사적 배경이 담긴 위덕왕의 이야기 그림자 영상도 볼 수 있다.

제3부 ‘향로 매직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 속 세계를 표현한 360° 입체형 실감체험 공간으로 어린이가 향로 속 캐릭터들에게 매직 스프레이로 색을 칠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모션인식 플레어로 내가 만든 캐릭터들과 놀이를 한다. 또한 커다란 매직 큐브를 던져 캐릭터들의 미션에 따라 함께 뛰놀면서 친구가 된다.

제4부 ‘풍덩~ 향로 속으로’는 친구가 된 캐릭터들과 함께 백제금동대향로 속 세계로 들어가 모험을 떠나는 공간이다. 내 취향에 맞는 향로 속 캐릭터를 찾아 향로 속 주인공으로 변신도 해보고

연꽃·산악 세계가 아닌 아파트 빌딩 속에서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해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향로를 꾸며볼 수 있다. 대형 퍼즐로 향로 꾸미기, 봉황에게 여의주 찾아 주기, 향로 속 캐릭터를 빨리 찾는 가족용 루킹 게임 등 다양한 체험 미션으로 향로 속 비밀들을 풀어볼 수 있다.

제5부 ‘얼쭈~ 향로 놀이터’는 유아를 위한 별도 공간으로 유아들이 신선이 사는 봉래산에서 낚시를 하거나 말을 타면서 뒤돌아 활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밍을 하고 줄을 타면서 봉래산에 올라 코끼리 미끄럼틀로 내려오기를 반복하며 신선 놀이에 빠진다.

제6부 ‘나는야 봉래산 신선’에서는 신선이 되어 봉래산에 올라 구름을 타고 친구들과 함께 오악사가 되어 리듬 게임으로 다섯 악기를 합주하며 온화하고 평화로웠던 백제의 태평성대를 느껴 본다.

제7부 ‘반짝반짝~ 향로 박사’는 백제금동대향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는 공간으로, 향로와 백제에 관한 퀴즈를 선택해 풀어보고 향로의 제작 과정을 디지털 게임으로 즐기면서 금동·청동·수은 아말감 기법 등 향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제8부 ‘향과 쉼’에서는 6종류의 옛날 향을 맡아보고, 7곳의 무지개 방에 들어가 세계의 재미있는 향 이야기도 찾아보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디지털 향로에 향을 피우며 소원을 빌어본다.

이처럼 어린이박물관에서 체험을 마친 어린이들은 백제금동대향로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에 부푼 채 진품을 만나러 상설전시실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재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은 2025년 12월 12일 개관 예정인 사비백제 국보관 전시와도 연계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멋진 관람 코스로 정착되리라 기대한다.

글. 김선영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 풍랑을 가르고 유유히 가는 작은 배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이는 바다 위를  
작은 배 한 척이 떠가고 있습니다.

뱃머리에 앉은 두 사람은 풍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연합니다.

배 한편에 있는 탁자 위에  
서책과 홍매화를 꽂은 백자병이 놓여있고,  
고목 위에는 백학<sup>白鶴</sup>이 사뿐히 발을 딛고 있습니다.  
세차게 넘실대는 바다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청색 바다는 언뜻 의지할 데 없는 망망대해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면 하얗게 흩어지는 해무<sup>海霧</sup> 사이로  
힘차게 일렁이는 물결이 자유롭고 활달해 보입니다.

풍랑을 가르고 유유히 가는 작은 배는  
거친 풍파에도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사람의  
호방한 경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글. 이혜경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



풍랑 속의 뱃놀이 船遊圖  
심사정<sup>沈師正</sup>(1707-1769)  
조선 1764년  
종이에 엷은 색  
27.3×39.8cm  
2018년 손세기·손창근 기증  
중 9891



20 2005  
2025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

# 희망의 뜻을 달아 새 시대를 열다

경복궁 시대의 마감과 새 출발



『박물관신문』 399호(2004.11.) 폐관식에 참석한 국립중앙박물관 전직원

1945년 8월 광복 후 국립박물관이 경복궁 안의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12월 3일 공식 개관했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되찾고 새로운 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은 전쟁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하기까지 여섯 차례 자리를 옮겨야 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 광복동으로 소장품을 대피시킨 것을 포함하면 무려 일곱 차례에 달한다.

1953년 휴전한 뒤 국립박물관은 경복궁에서 남산 분관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다시 1955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옮겨 개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후 1972년 국립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대식 신축 건물을 갖춰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에 자리를 잡아가 싶었으나,

다시 1986년 옛 중앙청 청사, 1996년 당시 사회교육관 건물(현 국립고궁박물관)을 거쳐 마침내 용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60여 년 간 박물관의 터전이 계속 바뀌면서 박물관인들은 소장품 보관 및 전시와 조사연구에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과 시설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수많은 소장품을 포장해 이동해야 했으며, 매번 업무 환경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박물관 본연의 역할도 수행해야 했다.

1960~1970년대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그 원형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였다.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유적 지표조사와 대규모 발굴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박물관 안팎의 다양한 소식들을 알리고자 1970년 7월 『박물관 뉴스』(지금의 『박물관신문』)을 창간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 암사동, 부여 송국리, 창원 다호리, 강진 사당리 유적 등 주요 발굴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문화유산 관련된 정보들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고고학과 미술사의 술어를 비롯해 모든 일본식 박물관 용어를 유물 카드와 대장 그리고 학술 보고서와 대의 선전에서 꾸준히 정리하느라 애써왔다. 그리고 일본인 학자들이 세워 놓은 고고학과 미술사 각 분야의 체계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자주적인 해석에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위해 많은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지금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자부한다.”  
- 최순우, 「두더지의 변」, 『박물관신문』 23호(1972.7.)

조사와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국립박물관의 역할도 커졌다.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와 다양한 경로를 거쳐 입수된 소장품이 대폭 늘어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를 위한 지역 소재 소속 국립박물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한편, 우리 문화유산을 외국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미술 오천년> (1976~1984)과 같은 대규모 국외 전시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역사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증명하면서 박물관의 발전과 도약에 밑거름이 되었다.



『박물관신문』 24호(1972.11.)



국립중앙박물관의 경복궁 시대는 연구와 전시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박물관이 성장할수록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소장품이 증대하면서 수장 공간과 전시실은 점점 포화상태가 되었고, 보존 환경 또한 여의치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1993년 취임한 정양모 제6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취임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의 자존심이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유물의 보존관리문제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과 기구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지금은 우리 문화가 비약하는 단계로 많은 문화사업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 박물관의 확장입니다.”  
- 정양모, 「취임사」, 『박물관신문』 260호(1993.4.)

1993년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새로운 부지를 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용산가족공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30만여 m<sup>2</sup>(9만여 평) 넓은 면

적과 편리한 교통 여건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신축과 이전을 위해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박물관 본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나갔다. 용산 이전 계획이 발표된 1993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선·원사시대 토기〉(1993.10.26.~12.19.)와 〈한국의 책문화 특별전〉(1993.11.9.~12.9.)을 개최하며 하루 1만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해 말에는 부여 능산리에서 〈백제금동대향로〉가 극적으로 발견되어 이와 관련한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대구(1994), 김해(1998), 제주(2001), 춘천(2002)에 소속 국립박물관이 차례로 문을 열면서 국립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가 지속되었다.

한편,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짓기 위한 본격적인 첫 단추로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제설계경기’가 개최되었다. 이 경기는 박물관 신축을 위한 기본 계획 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등 체계적인

사진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건축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단 2개월의 공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는 59개국 854건(국내 234건, 국외 620건)에 달하였다. 1년여 간의 다층적인 심사와 검토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남산과 연못을 배경으로 한 한국적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곡선미를 살린 설계안이었다.

1997년 10월 31일, 김영삼 대통령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용산에서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기공식이 열렸다. “은 국민의 뜻을 모아 온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이 민족자존과 긍지를 담은 우리 시대 최고의 문화공간이자 민족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모두의 정성을 모으자”는 염원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새 박물관의 건립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전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이와 함께 박물관 교육 기능의 확대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 최첨단 기기와 같은 전시 보조 기구의 도입 등 사회 변화에 따

른 새로운 숙제가 쏟아졌다. 게다가 용산 부지 내 미군 헬기장의 이전 문제는 10년 이상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졌다. 군사지역으로서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던 곳이 공공의 박물관 영역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지 많은 이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2004년 10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안녕! 경복궁”이라는 주제로 32년간의 경복궁 시절을 기억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박물관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희망적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2004년 11월 『박물관신문』은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시대 마감”이라는 제목 아래 박물관인들의 사진 한 장을 남겼다. 술한 난관을 넘어 안정적인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비상을 위한 박물관의 새 시대를 여는 모두의 다짐이기도 했다. 이듬해 5월, 미군 부지가 완전히 인수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시대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개관을 불과 반 년 앞둔 시점이었다.

글. 편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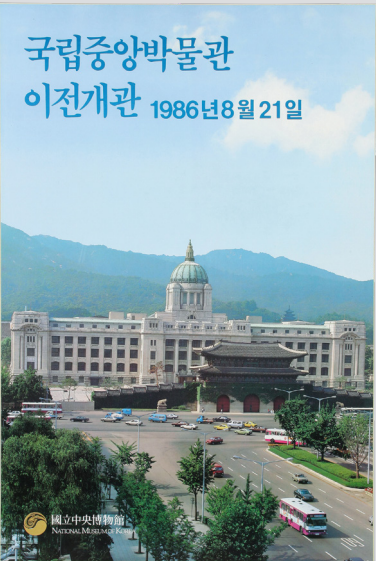
조선통독부박물관 소장품 인수 목록



덕수궁 시기 상설전시 안내 리플릿



박물관 개관 포스터(1972)



박물관 개관 포스터(1986)



『박물관신문』 303호(1996.11.)



『박물관신문』 399호(2004.11.)



경복궁 1기



남산 시기



덕수궁 시기



경복궁 2기



경복궁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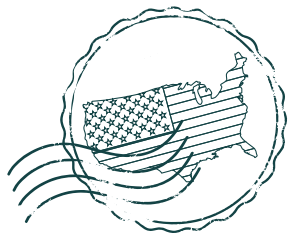


경복궁 4기



용산 시기





## 보빙사부터 한류까지 역동하는 한국 문화를 품다

### 미국 피바디에섹스박물관

Peabody Essex Museum

### 2025년 5월 한국실 재개관



글. 김지연 피바디에섹스박물관 큐레이터  
Curator, Peabody Essex Museum, US

2025년 한 해 동안 『박물관신문』의 'K-뮤지엄'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한국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서양식 모자  
조선시대, 1883년 경  
말총, 대나무, 종이  
Mrs. R. Keith Kane 기증, 1974  
피바디에섹스뮤지엄

미국 동부 보스턴에서 차로 40분가량 북쪽으로 가면 위치한 세일럼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가장 번성했던 유서 깊은 항구 도시이다. 지금은 매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1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헬러윈 도시로 유명하지만, 문학가 나다니엘 호손 Nathaniel Hawthorne의 유적지와 18세기 말 19세기 초 미국 건축과 공예의 대가였던 사무엘 매킨타이어 Samuel McIntire의 건축물 등 도시 전체가 문화유적으로 넘쳐나는 곳이다. 그 중심에 위치한 피바디에섹스박물관을 처음 찾은 것은 필자가 대학원생이었던 2000년대 초반이다.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유길준'이라는 이름과 한국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당시 전시되어 있던 유길준 유물을 비롯한 많은 한국 유물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여느 나라와 도시의 박물관에 마련된 한국실과는 달리 조선후기의 다양한 공예품과 섬유예술품 등이 전시되어 있던 점도 인상 깊었다.

피바디에섹스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연에 대해서 들은 것은 그 후 한참이 지나서이다. 1994년 이곳의 주요 한국 유물 중 대다수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져 전시되었고, 피바디에섹스박물관 내 한국실 건립을 위한 모금이 진행되었으며, 그 후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이 합쳐져 2003년 한국실이 문을 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개관 후 20년이 넘게 지난 올해, 이곳의 한국 유물들은 새롭게 확장된 공간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원으로 2023년부터 한국유물실 재개관을 주도하는 한국 큐레이터직을 수행하며 이를 준비하고 있다.

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연도 오래되었다. 2005년 서울 용산에서의 박물관 재개관 때 개관 도록 영문판 번역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후 박사 논문과 그 후 연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장품 열람실과 박물관 도서관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재작년에는 박물관의

해외 큐레이터 대상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에 초대되어 박물관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여러 직원과 대화할 기회도 갖게 되었다. 필자가 처음으로 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을 때와는 정반대로 한국 박물관의 첨단 전시기법과 선도적 프로그램을 해외 큐레이터들이 배워가려는 모습이 놀랍고 감격스러웠다.

피바디에섹스박물관 내 새로 개관하는 한국실 역시 이렇게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획되고 있다. 1883년 박물관 관장이었던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 Edward Sylvester Morse가 200여 점의 한국 유물을 처음 수집하였을 때는 수집가와 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당시 서구에서는 생소한 나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 세계 문화를 아우르는 박물관의 전체 컬렉션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었다.

한 세기 반이 지난 지금 새로운 한국관에 전시되는 이 유물들을 통해 당시 한국의 모습과 한국인 개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시 한국은 여러 면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지식인들은 보다 넓은 세계를 접하고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던 시기였으며, 많은 외국인의 입국과 함께 새로운 문화와 사상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당시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 대륙에 도착했던 유길준은 모스



조족동  
조선시대, 1885년  
종이, 철, 나무, 금속  
Percival Lowell 기증, 1885  
피바디에섹스뮤지엄



피바디에섹스뮤지엄 입구  
©2020 Peabody Essex Museum. Photography by Kathy Tarantola

관장을 소개받아 세일럼 근교에 머물며 미국 유학을 통해 근대화의 꿈을 꾸는 한편, 조선의 국왕 고종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에 사절단을 보내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다. 한국에 도착한 미국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서양식 생활 방식과 물질 문화를 한국에 소개했고, 고국으로 가져갈 한국 미술품을 사들임으로써 당시 미술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다각적이고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 피바디에섹스 박물관의 한국 미술과 문화 컬렉션이다. 새로운 한국관에서는 그 여러 인물의 이야기와 세일럼의 '교차지[crossroads]'로서의 특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개관전에서는 다수의 한국 현대 작가와 재미 한국 작가의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연두 작가는 한국관 개관식에서 유길준의 편지를 주제로 한 신작을 공개할 예

정이며 기존 작품으로 이루어진 개인전 또한 박물관의 별도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더불어 유길준의 여정을 모티브로 한 양숙현 작가의 디지털 작품이 한국실의 도입 공간에 위치해 관객을 맞이하게 된다. 그 밖에 박물관이 최근에 입수한 백남준의 작품 두 점, 재미작가 데이비드 정, 서원주의 대표작 등이 전시되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관점을 선사할 것이다.

국내외 인사들과 함께 치러지는 올해 5월 15일 개관식과 5월 17~18일 주말에 걸쳐 이어지는 다양한 전통 음악과 K-팝 공연, 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관 재개관은 뉴잉글랜드 커뮤니티 한인 전체의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스턴과 그 근교는 미국에서도 가장 전통적이고도 혁신적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다. 거주 인구의 평균 연령이 33세라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많은 학생으로 넘치는 활기찬 거리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지난해 보스턴 미술관에서 열린 한류 전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바디에섹스 박물관의 이번 재개관이 한인사회에 자긍심과 구심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보스턴과 세일럼을 포함하여 주변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에게도 한류 너머의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시 막바지 준비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필자 소개

미국 UCLA에서 한국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쳤다. 조선시대 회화와 근현대 한국 미술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 울산대학교 반구대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5년부터 미국 보스턴 지역의 다수의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쳤다. 2016년에서 2017까지 피바디에섹스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동박물관의 한국미술 큐레이터로 재직하고 있다.



## 2025년, 여전히 더욱 새롭게 우리의 즐거운 국립중앙박물관!

2025년 새해 첫머리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이들이 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각별한 시기에 어울리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뜻이 아닐까?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청했다. 박물관 곳곳에서 만난 관람객들은 환한 웃음으로 소감을 들려주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관람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게는 최고의 덕담이었다.



“박물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박물관은 계속 오게 되고, 계속 오고 싶은 곳입니다. 자주 와서 구석구석 둘러봐야겠습니다.”

장성욱 · 김서영



“외규장각 의궤나 디지털 광개토대왕릉비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유물을 쉽게,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옥순 · 김완제 · 정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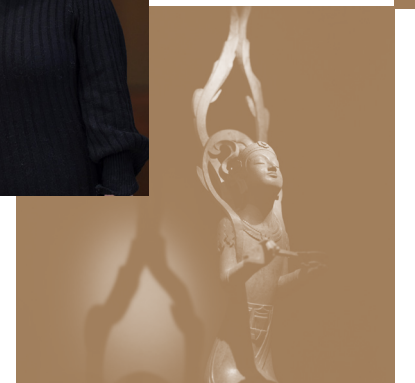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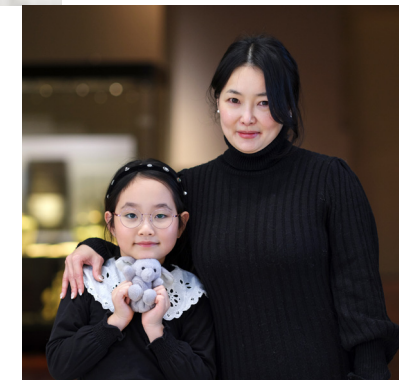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가득 담겨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피렌체의 우피치,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관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각기 전시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고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Simone · Emanuela, Italy

“세계문화관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아이와 일본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또 방문해야겠습니다.”

최진선 · 윤별하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굿즈를 좋아합니다. 유물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굿즈를 만나러 박물관에 오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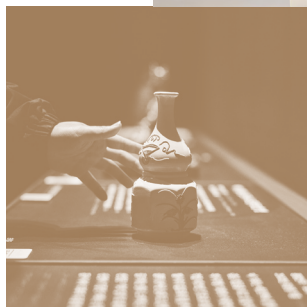
방소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역사에 더 관심을 보여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 보며 느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정화 · 전아린



“K-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현대극과 사극 모두 좋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을 느껴보고 싶어 몇몇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건물 자체가 아름다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Kylie · Alex · Jayson · Kate, Canada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를 아주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주전자를 표현하는 섬세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섬세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성숙 · 김장순



“방학을 맞아 아이와 함께 어린이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은 역사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문화유산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수 · 강리오 · 김민재 · 전민영



“우리나라 유물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 아이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니 아이도 좋아합니다.”

이지영 · 이서율



# 박물관 뉴스레터가 대중서가 되기까지

「유물명: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 박물관 IP의 즐거운 변신



## ‘유물명’의 시간

2023년 봄, 입사를 하자마자 재미있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박물관의 뉴스레터 서비스 ‘아침 행복이 똑똑’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일이었다. 요청 사항은 딱 하나. 대중성 있는 책으로 만들어 많은 이에게 읽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담당 부서로부터 원고와 이미지를 받아 보았다. 관람객과 큐레이터들이 필자로 참여한 정겹고 따스한 읽을거리였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니 필자만 400여 명에 각기 다른 문체, 다른 이미지로 이루어진 400편의 종잡을 수 없는 유물 감상기가 아닌가. 과연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었다.

대중서라면 독자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이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독자들이 개인의 유물 감상기를 궁금해할까? 도무지 어떻게 책으로 엮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친분이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돌렸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 같이 소구점이 없다는 말뿐. 이 정겨운 원고들을 맡아줄 편집자는 한 명도 없단 말인가. 다시 한번 원고와 이미지를 살폈다. 전문적이진 않지만 솔직하고 개성 있는 글들, 귀엽고 예쁜 유물들, 친진한 아이들의 그림.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재료들이었다.

이 각양각색의 구슬들을 어떻게 꿰어 보배로 만들까. 그렇게 원고를 붙들고 씨름하길 몇 달. 어느 날 머릿속에서 ‘반짝’ 하고 전구가 켜졌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거나 역사적인 지식을 주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작은 순간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필자들이 유물에 몰입하며 경험한 고요한 시간을 독자에게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면 어떨까. 그 고요한 시간을 ‘유물명’의 시간이라고 하면 어떨까.

## ‘아침 행복이 똑똑’이라는 원천 IP의 활용

「유물명」은 ‘아침 행복이 똑똑’이라는 원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를 활용한 콘텐츠의 좋은 예이다. ‘아침 행복이 똑똑’은 박물관이 소장품의 이미지와 필자의 감상 후기를 엮어 만든 뉴스레터로 2020년부터 5년간 10만 독자에게 꾸준히 배달된 큐레이션 서비스이다. 어느덧 400회가 누적되어 부피를 가진 오리지널 콘텐츠가 되었고 2024년 책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다.

출간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변신’의 시간이었다. 뉴스레터와 책은 무언가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 물성, 양, 구조, 사용자 경험, 발견되는 장소 등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했다.

변신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사용할 글과 그림을 고르는 일이었다. 기준은 명확했다. ‘유물명’의 시간이 흐르는 우주를 만드는 것. 조형적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과 개성 있는 글 100편을 골랐다. 두 번째, 이 책에서 만큼은 이미지가 서사를 끌고 가야 했기에 장르나 시기로 구분하지 않고 유물의 빛깔과 재질로 장을 나누었다. 자연스럽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어울리는 이름이 붙었다. 세 번째, 박물관에서 유물을 감상하는 경험을 책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글과 이미지를 배치했다. 구조가 만들어지고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물명’이란 키워드를 북극성 삼아 조금씩 구슬을 꿰어나갔다.

## 슈퍼 IP가 되길 바라며

「유물명」은 많은 분에게 창작의 지분이 있다. 문장을 다듬어 가독성을 높여준 에디터, 이미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편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인턴 선생님, 멋진 일러스트를 그려준 디자인팀 막내, 편안한 본문 설계를 해준 디자이너, 그리고 멀리는 백자대호에 달항아리라는 명칭을 만들어준 고 최순우 관장님과 고 김환기 화백, 도자공예실에 달항아리 방을 기획해 ‘달명’을 유행시킨 이어령 학예연구실장님. 가깝게는 ‘아침 행복이 똑똑’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한 유물관리부, 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신 선생님들 모두에게 조금씩 지분이 있다. 무엇이든 오래도록 꾸준한 것은 에너지가 있는 모양이다. 이 에너지를 양분 삼아 「유물명」이라는 책이 태어났으니 말이다.

‘아침 행복이 똑똑’, 「유물명」, 그 다음은 무엇일까? 들리는 얘기로 어느 부서에서 「유물명」을 활용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된다. 박물관은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보고이다. ‘아침 행복이 똑똑’이 「유물명」이 된 것처럼 소장품을 비롯한 박물관의 전시, 사람, 이야기가 더 다양한 콘텐츠로 변신하길 바란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과 인연 맺게 되기를 바란다.

「유물명: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

저자	국립중앙박물관 뉴스레터 ‘아침 행복이 똑똑’ 필진
출판사	세종서적
발행일	2024년 12월 17일
쪽수 및 판형	284쪽, 129×190×23mm
ISBN	9788984078574

글. 김미소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학예연구관







특별전 상설전 어린이박물관

	2 FEBRUARY	3 MARCH	4 APRIL	5 MAY	6 JUNE
중앙	+ - ÷ ×(알기 달기 잇기), 문화유산 속 마음   2024.11.19.~				
	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				
	〈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4.11.26.~2025.3.3.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2024.11.30.~2025.3.3.				
경주	〈반짝반짝 신라, 두근두근 경주〉   2018.01.26.~				
	〈소소하고 소중한〉   2024.12.10.~2025.3.9.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2025.4.~8.		
광주	〈조물조물 꿈을 빛는 도자기〉   2024.1.2.~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2024.11.12.~2025.3.10.				
전주	참방참방 기획   2025.1.2.~				
	〈재용신과 근대〉   ~2025.4.27.		서예문화실 재개관   2025.4.30.~		
	〈서예, 일상에서 예술로〉   2024.6.27.~2025.2.28.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   2025.6.5.~10.12.		
대구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석조물   2024.12.6.~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   2024.7.9.~2025.6.29.				
	〈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2024.12.7.~2025.3.3.				
부여	〈Hello 향로! 백제금동대향로의 초대〉   2025.1.2.~				
	옥외전시장 재개장   2024.8.26.~				
공주	〈왕과 왕비의 보물을 찾아줘~〉 2025.1.2.~8.10.				
	국가귀족유산 미리보기 〈우리지역 문화유산 재발견〉, 〈이목집중 문화유산〉   2024.11.23.~				
	〈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   2024.9.10.~2025.2.9.				
진주	〈사기장沙器匠, 흙을 빚어 삶을 아름답게〉   2024.10.1.~2025.2.23.		〈진주목과 진주사람(가제)〉   2025.5.20.~8.24.		
	국가유산 속 금속 이야기   상시,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상시, 〈영유아체험실〉 꼬마 친구들의 박물관 운동회   상시				
청주	국립청주박물관 제31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   2024.12.24.~2025.3.9.				
	〈거울, 시대를 비추다〉   2025.3.3.~7.6.				
김해	〈히타이트〉   2024.10.8.~2025.2.2.		〈크리스탈(水晶) 가야(加耶)〉   2025.5.20.~7.31.		
	'안녕, 제주!'   2021.11.26.~				
제주	〈동자상, 조각 정원〉   2022.11.11.~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 2024.8.13.~				
춘천	〈이상향으로의 초대-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3.~				
나주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   2024.10.8.~2025.2.9.		〈신촌리 9호분 금동관의 주인공〉   2025.4.29.~7.25.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2025.5.25.				
익산	〈미륵사지 중국도자〉   2025.6.3.~8.31.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중앙	〈공간 오감〉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2.4.(화)~2.27.(목) 매주 화·목·토, 10:00~11:30 / 14:00~15:30	공간 오감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어린이를 위한 감상가이드	2024.11.26.(화)~2025.3.3.(월)	특별전시실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교육 수레 - 복제품 촉각 체험 및 감상가이드 소개	2.20.(목), 2.21.(금) 14:00~16:00	특별전시실 근처
	전문가 대상 교육 - 유초등 교원 대상 박물관 연수	2.12.(수), 2.19.(수), 2.26.(수) 16:00~18:00 / 2.18.(화) 14:00~16:00	교육관 강의실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연계 교육 - 아는 만큼 보인다!	2.15.(토), 2.22.(토) 14:00~16:00	교육관 소강당
경주	[가족] 특별전 연계 '찰칵! 내가 찍은 문화유산'	1.31.(금)~2.7.(금) 매주 금 14:00~15:30	특별전시관 및 상설전시실
	특별전 연계 큐레이터와의 대화	2.4.(화)~3.4.(화) 매주 화·목 16:00	특별전시관
광주	[가족] 겨울! 박물관과 과학관 이야기	2.11.(화)~2.21.(금) 매주 화~금 13:30~15:30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대강당
	무력무력! 문화유산 더하기+	상시	어린이박물관
전주	전북에 있는 우리마을 보물찾기	2.1.(토), 2.8.(토), 2.15.(토)	본관
	참방참방 플레이(play)	평일(1.8.~2.18.) 15:00~17:00	어린이박물관 3층
	상자가 열리면	상시	어린이박물관 2층
대구	[관람객] 제24회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 그리기 잔치 입상작 전시	2024.10.1.(화)~2025.3.2.(일)	해설관 복도
	[특별전시 연계 해설] 큐레이터와의 대화	2.19.(수) 14:00~15:00	기획전시실
	[특별전시 연계 교육] 소망을 담은 향로	2.1.(토)~2.22.(토) 매주 토 10:00~11:30	문화사랑방
	[관람객] 문화유산 그림단추	2.1.(토)~2.22.(토) 매주 토 14:00~16:00	해설관 로비
부여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전! 백제금동대향로 박사'	2.1.(토)~2.28.(금)	온라인
	2차 온(ON) 가족 신선편음	2.21.(금)~2.24.(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온라인
	[겨울방학]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백제금동대향로	2.1.(토) 13:30~15:30	교육실
	향로 속 친구와 인사해요!	2월 중 예약제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2월 중 예약제	어린이박물관, 교육실
공주	한국의 색·향·미	2월 중 예약제	교육실
	희망박물관 더불어 좋은 세상!	2월 중 예약제	교육실
	유 퀴즈? 관찰하GO 생각하GO	1.2.(목)~12.31.(수)	상설전시실
	우리 가족 슬기로운 공작생활-백제 용 사전	2.8.(토)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구석구석 수장고 탐험	2.6.(목), 2.13.(목)	충청권역수장고
진주	무령왕의 길	2.11.(화), 2.12.(수)	상설전시실, 세미나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2.5.(수)	기획전시실
	특별전 연계 '큐레이터와의 대화'	2.22.(토) 14:00	기획전시실
	특별전 연계 '흙으로 만든 세상'	2월 매주 수, 2·4주 토 14:00~16:00	교육실, 기획전시실
	뽕잔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2월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역사문화홀
청주	조선 수군 체험	상시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2월 매주 토·일 10:00~11:00	어린이 임진왜란 체험실, 전시실
	석신로드(AR콘텐츠)	상시	야외정원
제주	큐레이터와의 대화	2.26.(수)	상설전시실
	보급형 교육상자 대여	상시	각급 학교
	어린이 겨울방학 프로그램	2.5.(수)~2.20.(목) 매주 수·목	교육실
춘천	관람객 누구나, 체험공간 〈문화놀이터〉	상시	문화놀이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산책 〈춘박 명품 토틀보기〉	2.26.(수)	상설전시실
나주	[가족]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월 매주 토 10:30, 14:00, 16:00	어린이박물관
	[가족] 종이풍선에 담긴 문화유산	2월 매주 일 10:30, 14:00, 16:00	어린이박물관
	[누구나] 큐레이터와의 대화	2.4.(화)~2.9.(일) 중 희망 시간	기획전시실
익산	도술이와 함께 떠나는 미륵사지 시간탐험	2.1.(토)~2.22.(토) 매주 토	어린이박물관
	박물관 속 고도 익산 여행	2.1.(토)~2.23.(일) 매주 토·일 및 공휴일	상설전시실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 연계 프로그램 '와박사의 모자를 찾아라'	2.1.(토)~2.23.(일) 매주 토·일 및 공휴일	기획전시실



나전칠기의 상징적 가치를 담았다!  
‘영롱한 천년의 빛, 나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협업 굿즈

‘영롱한 천년의 빛, 나전’은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전 유물의 패턴, 색상, 형태의 의미와 쓰임새를 재구성하여 친밀한 사물로 전개하였다.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소중한 미래인 전통문화유산의 독자적인 숨결이 깃든 나전칠기의 정체성을 상징적 가치로 담은 굿즈를 만나보자.

나전은 얇게 간 패각 안쪽의 자개(조개껍데기)를 다양한 형태로 기물의 표면에 장식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말한다. 짙은 어둠 속에 오묘한 색채와 세련된 문양, 아름다운 빛을 새겨 넣어 때로는 단아하고 때로는 고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나전 기술은 문양의 세밀함과 화려한 패턴의 미적 창의성이 뛰어난 전통 공예이다.

- 1

**나전 장우산**  
크기: 55×55×920mm  
소재: 폴리에스터, 자개(손잡이)  
판매가: 63,000원
- 2

**나전 티슈케이스**  
크기: 120×120×120mm  
소재: 종이(코팅)  
판매가: 12,000원
- 3

**나전 부채 손수건 세트(모란)**  
크기: (부채) 350×200, (손수건) 430×430mm  
소재: 대나무, 면  
판매가: 35,000원
- 4

**나전 부채 손수건 세트(거북)**  
크기: (부채) 350×200, (손수건) 430×430mm  
소재: 대나무, 면  
판매가: 35,000원
- 5

**나전 쟁반**  
크기: 215×125×17mm  
소재: 멜라민  
판매가: 10,000원



구매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 또는  
온라인 뮤지엄숍  
www.muds.or.kr



5

2025년 2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08회	18:00~18:30	19:00~19:30	
교육관	특별전시실2	특별전시실1	조각·공예관
장애, 비장애 통합 전시체험교육 <공간 오감> 교육관 교육과 손미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8) 특별전시실2(121호) 미술부 서유리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4) 특별전시실1 전시과 양승미	한국의 사리장엄구 금속공예실(302호) 유물관리부 김민송
809회	18:00~18:30	19:00~19:30	
기증관	특별전시실2	조각·공예관	조각·공예관
불교 경전이 들려주는 부모님의 은혜 기증4실(205호) 세계문화부 최정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9) 특별전시실2(121호) 미술부 서유리	오감으로 감상하는 금속공예 금속공예실(302호) 미술부 김지호	절제의 미덕, 계영배 분청사기·백자실(305호) 보존과학부 곽홍인
810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특별전시실2	특별전시실1	중·근세관
다호리 1호 무덤과 삼한사회의 지배자 부여삼한실(104호) 고고역사부 김민철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10) 특별전시실2(121호) 미술부 서유리	특별전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5) 특별전시실1 전시과 양승미	고려 동경에 담긴 이야기 고려1실(113호) 유물관리부 구문경
811회	18:00~18:30	19:00~19:30	
조각·공예관	특별전시실2	선사·고대관	세계문화관
전환기의 불상들, 여말선초 금동불 불교조각실(301호) 미술부 양수미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11) 특별전시실2(121호) 미술부 서유리	광개토대왕릉비와 고구려 고구려실(105호) 고고역사부 김태영	일본 회화 감상 일본실(310호) 디지털박물관과 이원진
2.26.	18:00~18:30	19:00~19:30	
조각·공예관	특별전시실2	선사·고대관	세계문화관
전환기의 불상들, 여말선초 금동불 불교조각실(301호) 미술부 양수미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11) 특별전시실2(121호) 미술부 서유리	광개토대왕릉비와 고구려 고구려실(105호) 고고역사부 김태영	일본 회화 감상 일본실(310호) 디지털박물관과 이원진





webzine.museum.go.kr

#### 표지 이야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를 비롯해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대와 시대를 잇고, 전 세계와 함께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을 나누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용산 이전 개관 2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공감의 박물관’, ‘열린 박물관’, ‘융합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이라는  
네 가지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공간,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가겠습니다.